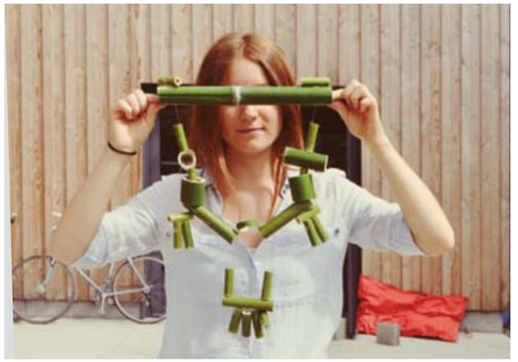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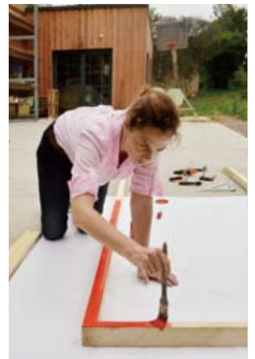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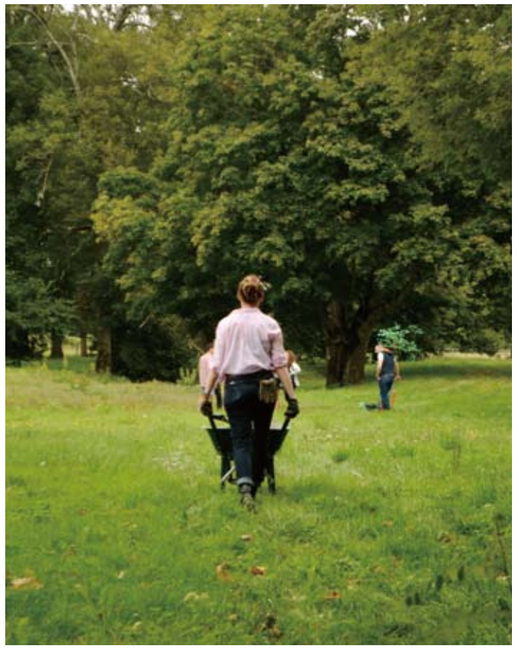

# 프랑스 부아부셰에서의 일주일

**매년 6~8월이면 캄파냐 형제, 시게루 반, 하이메 아욘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로 모여든다. 뜨거운 여름날, 일상과는 단절된 이 예술의 땅에서는 특별한 국제 디자인 워크숍이 열리기 때문.**

파리에서 고속열차 TGV를 타고 2시간을 달리면 프랑스 남서부, 샤랑트(Charentes) 지방의 푸아티에(Poitiers)역에 도착한다. 여기서 1시간 더 차를 타고 끝없이 이어진 해바라기밭과 옥수수밭을 지나면 마침내 150헥타르가 넘는 드넓은 대지에 숲, 공원, 호수, 성이 어우러진 '도멘 드 부아부셰(Domaine de Boisbuchet)'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지난 25년 동안 색다른 아트 워크숍을 이끌어온 이는 알렉산더 폰 페게작(Alexander Von Vegesack)이다. 비트라 뮤지엄(Vitra Museum) 개관 때부터 뮤지엄 디렉터로 일했던 그는 1986년 이 대지를 매입했다. 그 후 레노베이션을 거쳐 부아부셰 고성은 매 시즌 각기 다른 전시를 선보이는 갤러리로, 곡물 창고와 마구간은 워크숍 방문객(디자이너들과 학생들, 스태프 등)이 지낼 수 있는 스튜디오와 기숙사로 거듭났다. 대지 곳곳에는 시게루 반을 비롯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워크숍에 참여하며 학생들과 완성한 20여 개의 독특한 건축물이 그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알렉산더가 사비로 운영하는 이 아트 워크숍은 디자인과 건축 분야의 전문가, 학생,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모여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쟁쟁한 디자이너, 건축가, 아티스트를 튜터로 초청해, 워크숍 주제에 맞춰 튜터와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공동 작업의 기회까지 주는 것이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한 주 동안은 유명한 디자이너도 특별 대우 없이 다른 참가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한다. 튜터는 자신의 캐릭터와 작업 스타일을 반영한 주제를 택해 참가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 완성한 작품을 부아부셰 부지 어딘가에 설치하게 된다. 튜터 선정은 부아부셰의 디렉터인 마티아스 슈와츠 클라우스(Mathias Schuartz Clauss, 전 비트라 뮤지엄 큐레이터)와 알렉산더가 함께 한다. 참가 신청은 워크숍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학교에서 단체 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워크숍당 최대 인원은 20명 정도다. 매년 워크숍의 메인 테마가 정해지는데 올해의 타이틀은 'Design and the Community'였다.

올해 초대된 튜터 역시 쟁쟁했다. 저명한 건축가 알바로 시자, 베탄 로라 우드, 하이메 아욘, 그리고 한국 디자이너 장응복까지 다양한 아티스트가 워

크숍 튜터로 참석한 것. 〈헤렌〉이 취재를 위해 머물렀던 일주일 동안에도 세 가지 워크숍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워크숍이 시작되면 디자이너들과 학생들은 한 팀이 되어 아침 식사 때(오전 8시 반)부터 자정까지 그야말로 동고동락하게 된다. 튜터와 학생을 떠나 스스럼없이 작업에 대한 것부터 각 나라의 이슈까지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본인이 참가한 워크숍 외에 동시 진행되는 또 다른 워크숍 팀과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 디자인 시너지가 제대로 일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작업에 쓰일 재료 탐색부터 완성 작품 배치 장소까지 하나하나 고민하고 선택하는데, 약 330m²(100평)가 넘는 널찍한 작업실 그리고 대자연에 둘러싸인 숲 속에서 사색하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튜터는 속세의 유명세나 명성은 잠시 내려두고 일반인과 유명인이 아닌, 예술과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가구 디자이너 필립 니그로는 참가자 그리고 장소가 주는 에너지가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두세 번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일본 디자이너 신 아주미 역시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세미나나 워크숍을 진행했지만 부아부셰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창적인 워크숍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야생마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들판, 소박한 호수와 아름다운 계곡을 배경으로 흥미로운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은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유명 디자이너와 격의 없이 둘러앉아 지중해식 요리를 즐기며 삶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감동적이다. 꽤 많은 디자이너들이 런던이나 밀라노의 화려한 디자인 위크보다 부아부셰를 찾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헤렌〉이 부아부셰를 찾았을 때는 프랑스의 유명 가구 디자이너 필립 니그로와 아인트호벤 디자인 스쿨 교수인 얼윈 코빙턴의 워크숍 'Doors Opening'이 열리고 있었다. 워크숍은 월요일 아침, 튜터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되었다.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의 진화와 변화'라는 테마였다. 부아부셰의 자연과 대지 위 건축물을 연결하는 각종 문, 다리, 커튼, 창문 등을 만들어 이 공간을 변화시켜보자는 것. 참가자들은 다시 소그룹으로 나뉘어 약 30분 동안 부아부셰를 산책하며 대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를 통해 각 그룹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그중 최종 아이디어 네 가지를 선택해 그룹별로 작업에 돌입했다. 그때부터는 아틀리에에서 자신이 사용할 주재료를 선택해 실제 작업 진행 방식을 고민하게 되는데, 제작의 기술적인 부분은 아틀리에에 상주하는 기술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직접 손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이제껏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컴퓨터로 작업해왔던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색다른 도전정신까지 불러일으켰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는 작업을 끝내기 위해 한층 분주해졌다. 금요일 오후에 있을 워크숍 공동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이었다. 'Doors Opening'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부아부셰와 그 옆 강을 잇는 작품, 원형 설치물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야기하는 작품, 초원 한가운데 설치된 삼각형 문 작품 등을 선보였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박수와 환호 소리에서 이들이 친구 이상의 끈끈한 관계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술과 디자인이라는 공통분모로 일주일 만에 국적과 나이를 뛰어넘은 그런 관계 말이다. 저녁 식사 후 마련된 캠프파이어 파티에서는 사심 없는 대화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다들 부아부셰의 마지막 밤이 끝나지 않길 바라면서 자리를 뜰 줄 몰랐다.

**writing** Jeanne Kim(프리랜서) **editor** 조민정

## Designer's Talk
### 디자이너 장응복의 워크숍 참여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모노콜렉션 대표인 텍스타일 디자이너 장응복은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부아부셰 워크숍에 튜터로 참여했다. 작년, 이곳에 잠깐 들른 적이 있긴 하지만 튜터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다. 올해 워크숍의 주제는 'Design and the Community'였는데, 공공 책임 의식의 결여,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참여 활동 부족 등 세계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공동 디자인 작업을 통해 되돌아보고 공동체의 개념을 다시금 되새겨보자는 취지였다. 워크숍 직전까지 참가자들의 국적을 알 수 없어 다소 고민되긴 했지만 워크숍 주제를 '탑돌이_우리들의 패치워크 탑(TOP-DORI-Our Patchwork Pagoda)'으로 정한 것 역시 동양과 서양의 다른 시각을 함께 나누는 공동 작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2011년, 한국공예진흥원이 주최한 롯데 에비뉴엘 전시에서 탑돌이를 주제로 한 철탑 구조물을 선보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지와 패브릭을 이용한 한결 가벼워진 구조물을 작업해보기로 했다. 한국에서 가져간 모노콜렉션 패브릭과 부아부셰 현지에서 직접 염색한 패브릭을 조각조각 이어 붙인 다음 철탑 구조물을 세우고 그 안에는 패치워크 패브릭을, 밖에는 흰색 한지를 붙여 탑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였다.

'탑돌이'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은 총 10명, 그중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국적 참가자가 5명, 대만 참가자가 5명으로 공교롭게도 서양인과 동양인의 비율이 반반이었다. 워크숍 기간은 총 일주일이었지만 첫째 날은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 불교 문화, 그리고 탑을 돌며 소원을 비는 탑돌이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느라 실질적인 작업 기간은 완성작 발표 날인 금요일까지 3일 반나절 정도에 불과했다.

열정적인 한국인 튜터답게 천연 염색, 철탑 제작, 패치워크 작업, 한지와 패치워크 패브릭을 밀가루 풀(작업 시 화학 재료는 모두 배제했다)로 철골에 고정하는 작업까지, 탑돌이 제작 일정은 다른 워크숍에 비해 꽤 밀도 높은 스케줄을 필요로 했다. 참가자들은 두 명씩 짝이 되어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자국의 바다, 노을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조각 잇기 작업을 해나갔는데, 한 참가자는 자신의 할머니가 쓰던 오래된 천을 직접 가져와 작업하기도 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패브릭이나 손수 염색한 패브릭으로 작업하며 조각보 잇기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다 보니, 마침내 완성한 패브릭 탑엔 참가자들의 과거와 경험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 겉에서 보면 단순한 흰색 한지지만 탑 안에 들어가 참가자가 각기 다른 콘셉트로 이어나간 층층의 조각보를 올려다보는 경험은 참으로 새로웠다. 참가자들이 '함께' 만든 작품 안에서 화려하면서도 다정한 패턴을 올려다보던 각자의 얼굴에는 충만함, 행복, 감동 등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렇게 '소원을 비는 탑'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각품이 완성된 것이다. 장응복 디자이너 개인적으로도 이번 워크숍은 특별했다. 순수 장인이 아닌 전통 모티브로 현대적인 작업을 하는 자신에게도 화학 재료를 일절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작업한 이번 작업 과정은 꽤 의미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작업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Domaine de Boisbuchet** **add** 16500 Lessac, France **tel** (33)5-45-89-67-00
**web** www.boisbuchet.org **email** info@boisbuchet.org